

불법 '쓰레기 산' 징벌적 과징금 부과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5월부터 시행 전남 18곳에 쌓인 3만t 넘는 불법 폐기물 해결 기대

정정 전남지역 내 불법으로 버려져 쌓여있는 3만t이 넘는 폐기물을 해결할 수 있는 법개정이 이뤄졌다.

환경부는 "불법으로 폐기물을 버린 경우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무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 무단으로 방치한 폐기물이 논란이 되자 일명 '쓰레기 산' 재발을 막고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전남 지역도 올해 초 18곳에서 확인된 불법 폐기물만 3만 2400t에 달한다. 이는 전국 14개 시도 중 4번째로 많은 규모로, 환경부는 연내로 모든 불법 폐기물을 처

우 방침이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되고,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청은 불법 폐기물 발생 책임자에게 폐기물을 불법 처리해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그간 불법 폐기물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은 높지만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 법령 기준을 위반해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전자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등

중전에 과태료 부과에 머물렀던 일부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징역 또는 벌금 형에 처할 수 있도록 제재 수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경우 환경부가 정하는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이 법령을 준수해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폐기물 배출자에게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부과되고 더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도 불법 폐기물이 쌓여 있는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 업체는 최초 허가 이후 별도로 자격 재확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폐기물 처리업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도·양수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는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고의 부도나 대항자를 내세운 명의 변경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한 감염 우려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 폐기물의 경우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용 처분업체뿐 아니라 지정 폐기물 처분 업체를 통해서도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불법 쓰레기 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자생생물 5만여 종 한권에 담았다 환경부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 발간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이 국내 자생생물 5만 827종의 통계와 현황을 담은 '국가생물다양성 통계자료집'을 발간했다.

올해 발간된 통계자료집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리된 자생생물 5만여 종을 최초로 과(family) 수준으로 분류해 현황을 제시하고 자생생물 통계, 한반도 고유종, 멸종 위기 야생생물 현황 등을 수



록했다.

발간된 자료집은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관련 부처, 지자체단체, 주요 도서교유종, 멸종 위기 야생생물 현황 등을 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도 인증 등급 있다

환경부, 성능 등급서 발급

환경부는 지난 8일부터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4개 기관에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38대에 대한 성능 인증 등급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공기 중에 있는 입자에 빛을 쬐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 가능한 기구로, 휴대도 간편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습도 등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아 측정 결과의 신뢰도

가 낮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아 그간 측정기 간 성능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8월 15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인증기관의 평가를 통해 이번에 처음으로 간이측정기에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각 인증기관은 측정 결과의 정확도와 정밀도 등 평가를 거쳐 측정기를 1~3등급, '등급 외' 등 4단계로 구분했다.

이번에 평가받은 간이측정기의 기기명, 성능 인증 등급 등은 각 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등산 등 일부 탐방로 산불방지 위해 출입통제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무등산 등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무등산은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석대-전왕봉-군부대입구 1.1km 구간, 광일목장입구-신선대갈림길 3.1km 구간, 소태제-마집봉갈림길 1km 구간, 풍암주자장-광일목장 2.1km 구간, 도원야영장-마당배위 1.1km 구간, 선주암갈림길-서인봉갈림길 0.8km 등 6개 구간 9.2km를 통제한다.

지리산 통제 구간은 같은 기간 노고단고개-장터목 23.8km 구간, 치밭목-천왕봉 4km 구간, 두지동-천왕봉 7.7km 구간, 불일폭포-삼신봉 6.6km 구간 등 25개 구간 125.3km이다. 월출산도 같은 기간 무위사-미왕재 2km 구간, 용암사지-흥계골 2.8km 구간 등 2개 구간, 내장산은 구암사-헬기장 0.9km 등 3개 구간 7.5km다.

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립공단은 산불 발생 우려 구간에 설치한 산불감시카메라 113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CC-TV 598대를 이용해 산불을 상시 감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 흡연, 인화 물질 반입, 통제 구역 무단출입 등 위반 행위 단속도 강화되며 국립공원에서 흡연, 통제 구역 무단출입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멸종위기 1급' 여우, 소백산에 방사



국립공원공단이 올해 9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여우 23마리를 가족 단위로 소백산 국립공원 일대에 방사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이 올해 9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여우 23마리를 가족 단위로 소백산 국립공원 일대에 방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23마리 가족단위로 총 54마리 야생에서 서식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여우 23마리를 가족단위로 공원 일대에 방사하고 개체군 형성과정을 확인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방사된 여우는 부모 6마리와 올해 경복 영주에 위치한 증식시설에서 태어난 새끼 17마리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다양한 가족단위 방사를 통해 여우들의 야생 적응력과 초기 생존율 향상, 기존 개체들과의 자연스러운 개체군 형성과정 등을 살펴보고있다고 밝혔다.

방사를 통해 야생에서의 빠른 적응력 및 초기 생존율 향상, 기존 개체들과의 자연스런 개체군 형성 등을 살펴 보고 있다.

또한 올해 증식시설에서 태어난 새끼는 총 19마리로 2012년 여우복원사업 시작 이래 가장 많은 개체수를 기록했으며 이중 17마리가 방사됐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2012년 시작된 여우 복원사업을 통해 2020년까지 소백산 인근 지역에 여우 50마리 이상이 서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백산 여우는 올해 방사한 23마리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75마리가 방사됐으며, 54마리가 야생에서 서식(방사 43마리·야생출산 11마리)하고 있다.

비료 절감 사과로 만든 주스 '탄소발자국' 인증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협력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사과, 복숭아로 만든 주스, 병조림 등 7개 제품에 '탄소발자국' 인증을 부여했다고 4일 밝혔다.

탄소발자국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는 제도다. 인증 제품의 원료가 된 사과, 복숭아는 생산 과정에서 화학 비료, 농약, 에너지 절감을 절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했다

기술원은 설명했다.

인증받은 사과 주스 2개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을 각각 20.7%, 15.5%, 황도 병조림은 일반 제품보다 8%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탄소발자국을 인증받은 농업법인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유통기업·농업 법인 간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산강환경청, 섬 생태계 해치는 염소 '소탕'

여수시 삼산면 안목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2일 특정 도서로 지정된 전남 여수시 삼산면 안목섬에서 불법 방목 가축 포획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 야생생물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회원 등과 합동으로 염소 등 방목 가축을 몰아 잡아들이 계획이다.

포획한 방목 가축은 재방사 금지 서약서를 받아 마을공동체에 기증할 방침이다.

영산강환경청은 특정 도서 생태계 교란 요인을 제거하고자 매해 1차례 이상 불법 방목 가축을 잡는다. 특정 도서란 생태계 보전 가치가 크거나 지형·지질 자원이 우수한 연안 무인도다.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청취해 지정한다. /연합뉴스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신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관동지점	266-4150
영남지점	573-4150
충청지점	528-4150
영남산지점	513-4150

대전지점	572-4150
충청산지점	576-4150